

[사회]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8 비인기 종목에도 박수를



지난해 12월 제 15회 아시안게임 한국-레바논의 핸드볼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 인도어 홀. 경기 시작 전부터 어린 학생들이 열광해...

'그들만의 경기' 안되게 시민의 열기로 채우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도 비인기종목의 관중석은 텅텅하다. 관중 대부분이 취재진 아니면, 선수단 관계자일 때가 많다.



인기 종목의 선전 덕분에 3회 연속 2위를 달성했다. 반면 지역 연봉자들이 즐비한 축구, 야구 등은 배편 관중석은 늘 비어있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광주시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를 마련한다.

'빛고를 독서마라톤' 참여 줄이어

광주일보사·광주교육청 주최 시민·학생·기업 문의 빗발

광주일보사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범시민 독서운동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에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대회 추진위원회에는 요강을 자세히 묻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와 참여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각 일선 학교에서도 참여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부문에 참여자가 줄을 잇고 직장이나 모임 단위의 단체부문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는 대회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42.195km의 마라톤 경기를 독서량과 접목시킨 책읽기 대회로, 읽은 책 1페이지를 1m로 환산해 우물을 가린다.

종목은 5km(5천 페이지)·10km(1만 페이지)·하프코스(21.975km·2만1천975페이지)·풀코스(42.195km·4만2천195페이지) 등 4개.

개인은 5km·10km·무한도전(독서챌린지) 등 3개 부문에, 5인 이내의 가족이나 단체는 하프코스·풀코스 등 2개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추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bookmarathon.gen.go.kr)에 접속해 오는 14일까지 참가 신청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부문별 마라톤일지를 배당한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9월 15일~12월 15일) 중 개인·가족·단체별 독서기록을 홈페이지 내 마라톤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대상 도서는 대회기간 중 참가자 명의로 대출했거나 구입한 도서에 한하며, 전공서적·정기간행물·만화·판타지 문학·수험서·화보는 제외된다. 광주지역 240개 서점은 대회 참가자에게 서적 10% 할인 혜택을 준다.

추진위원회는 각 부문별 입상 예정자의 도서대출 및 구입 내역 확인, 마라톤일지 작성의 성실성과 내용의 충실도, 독서영역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입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무한도전 부문의 경우 학생과 일반 부문에서 각 2명씩 선정해 광주일보사장과 광주시교육감 표창과 메달, 상금을 수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및 단체 참가 문의가 잇따라 고무적"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휴일 짝 막힌 학원가 광주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인 동구 동명동 일대 거리가 휴일인 9일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학부모들이 몰고 나온 차들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검찰 결정문 짧고 쉽게 쓴다

'~하였바' 등 길고 난해한 문장의 표본이었던 검찰 결정문이 60년 만에 짧고 쉬운 문장으로 크게 바뀐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용어 등 작성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短文)으로 쓰기로 했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라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동인을 의포개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쓴다.

검찰은 혼선과 업무가중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 연말까지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 작성시 개선안을 먼저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10th, including a table of temperatures by region and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광주교육청 "사립외고 설립 강행"

광주교육청이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외교 설립 사전 협의 절차를 오는 10월 말까지 전면 유보해 당분간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외고가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신설 여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외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교가 없는 시·도까지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교 설립은 단순일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시교육청이 광주시와 체결한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

을 위한 11가지 전략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외교를 광주에만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등 제반사항 담은 '학교 이력서' 공개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재무·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Advertisement for the 88th National Sports Meeting (SC-IT) featuring various sports equipment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Rodem gallery showcas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furniture and home decor.